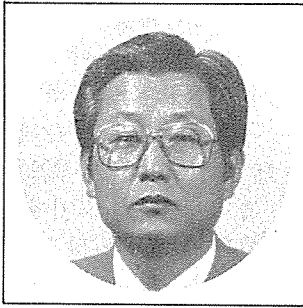


□ 농촌의 당면문제와 교육의 개선방향

소득증대와 文化生活 教育환경 확충되어야



李 茂 根

〈서울大農大 교수〉

한국 농촌사의 당면문제

우리나라의 농업도 지난 수십년 동안에 생명 공학을 통한 신품종의 개발, 농업기계화, 농업 생산 기반의 조성과 개선, 이종곡가정책,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민의식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1960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공업화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또 최근에는 과학과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되면서 산업이 공업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농업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 농촌, 농민이 모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를 몇가지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에 종사할 농촌의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 부족하다.

현재 농촌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특히 농가인구 중 농업교육을 받은 젊은 청소년들의 이혼율이 높고 영농정착율이 낮아 농업이 노인과 부녀자들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 경향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농업 노동력이 질적으로 저하되었고, 그 결과 농업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다. 농가인구의 감소는 비단 남성뿐만 아니라 농촌의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 도시를 동경하고 이혼을 원하며 농촌의 청년들과는 결혼하는 것도 기피하고 있어 농촌의 젊은이들은 결혼할 배우자가 없어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조차 이루기 힘든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다.

둘째, 농업 소득이 타산업, 타직업에 비해 대단히 낮다.

우리나라의 농업도 자급농에서 상업농으로 전환되고 있다. 농업의 어떤 분야나 작부체계의 농업에 종사하든간에 「직업」으로서의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농업직종도 직업의 정의에 부합되어야 한다. 즉 직업이란 일의 댓가에 경제적 보수가 수반되어 생계유지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인간의 고차적인 요구인 자아도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농업종사자들은 그동안 농업기술의 발달과 기계화로 단위당 생산량은 증가되고 있지만 농가 소득은 크게 증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농가당 부채가 계속 늘고 있고 따라서 농업을 평생의 보람된 직업으로 택하여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마지못해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농업이 국내적으로 어려움

에 처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대외적으로는 농산물 수입 개방의 압력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이제 몇년후면 대부분의 농산물이 수입개방화할 단계에 있어 농민들은 이에 대비한 상업농을 어떻게 설계하여야 할지 방향감각마저 찾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셋째,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국민들의 농업, 농민, 농촌의 고충과 이를 도우려는 국민적 자세가 미진하다.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대접 받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삶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형백화점의 식료품상에는 수입된 농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보다 더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고 값도 비싸지만 시민들은 계속 이를 사서 먹고 있다. 1960년대 초만 하여도 우리 국민의 80%가 농촌에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도시에 살고있는 대부분의 시민도 농촌 출신이다. 농촌이 춘궁기의 보리고개라는 말은 없어졌지만 농가당 부채가 평균 300만원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의 시민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여 그들이 30년전에 살던 정든 고향을 생각하고 현재 농촌의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설사 값이 싸더라도 꼭 수입된 농산물을 사서 먹어야 할 절박한 처지에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이는 앞으로 도시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더욱 더 심각하게 되거나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그리고 수입농산물을 사서 먹는 국민들의 의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름있는 기업체가 우리나라의 농업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농산물을 수입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지가 의문이다. 기업은 이윤만 추구되면 이에 직접 관련된 농민들은 어떤 피해가 따르더라도 상관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네째, 농촌의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해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그동안 농촌의 생활환경도 많이 개선되었지

만 아직도 도시에 비해 교통, 의료, 교육, 문화 시설 등이 대단히 빈약하다. 정부는 농의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에 농공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농공인력이 부족하여 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필자는 농공지구 기능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위임받아 이루어 수행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농공지구 기능인력이 왜 부족하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명할 기회가 있었다. 농촌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남·여를 불문하고 농촌에도 취업 기회가 있는데 왜 도시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가를 구명해 본 결과, 농촌은 도시에 비해 교통, 의료, 교육, 문화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였다. 비단 이는 농촌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농촌의 학부모들도 도시·농촌간의 교육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부채를 지면서도 자녀들을 도시에 보내 교육시키고 있다.

농촌교육의 문제

농촌교육의 문제는 보통교육으로서의 초·중등교육과 농업교육의 관점에서의 농고, 농진, 농대교육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보통 교육으로서의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에는 학부모의 교육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이 좋은 우수한 학교가 없다.

농촌의 학부모들도 자녀의 교육 기대 수준이 도시민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즉, 농어촌 주민의 85%가 아들을 대학까지 교육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을 정도로 높다. 농촌의 학생자원이 계속 감소되어 국민학교는 분교와 복식 학급을 운영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학교별, 학급별 학생수가 적어 규모면에서 영세학교가 많아지면서 상치교사가 많아져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가 어렵다. 또한 교육시설, 특히 실험실습을 위한 특별교실, 도서실, 시청각 시설 등이 대단히 불비하여 교육과정의 정

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학생들의 학력이 도시 학생에 비해 상당히 낮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대학진학을 위해 자녀들을 도시의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게 함으로써 교육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 실례로 농수산부의 농가경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가의 교육비는 1974년 27.8천원이었는데 1986년에는 581.4천원으로 21.1배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동안 농가의 소득은 8.9배, 농가의 가계비는 11.5배로 증가하였다.

둘째, 농고, 농전 교육을 통해 양성된 상업농을 경영할 수 있는 우수한 농민후계자가 많지 않다.

농고, 농전 졸업생의 영농 정착률 저조는 그 이유를 여러가지 면에서 구명할 수 있다. 우선 앞에서도 제기하였듯이 농업이란 직업도 수지맞는 직업이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작목이나 작부체계를 국가나 학교나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고나 농전 재학생들에게 농업에 종사하게 하는 동기 유발이나 유인가를 주기 힘들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고나 농업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흥미가 없고 학력이 비교적 낮은 학생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 기자재(특히 농업기계)가 노후화되어 있어 실습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실습 농장도 본연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실습이라기보다 실습 농장을 통한 수입증대로 농장경영을 시도하고 있어 교육의 효과가 낮다. 그리고 학과편제가 직업 준비를 위한 교육보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농학의 학문분류 체계에 의해 편성 운영되고 있어 변화하는 농업산업 구조에 융통성있게 적응하기 어렵다.

셋째, 농과대학의 교육과 연구 및 사회 봉사 활동이 농업, 농민, 농촌 발전에 기대만큼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농과대학 졸업생들은 농업, 농민, 농촌발전에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야만 하는데 오늘의 농촌현실을 볼 때 농과대학 교육이 기대만큼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농업

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어 농과대학의 학과명도 좀 바뀌고 새로운 학문의 학과도 신설되어야 하는데 전국농과대학의 학과편제나 교육과정이 몇개 전공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고 획일적이어서 농업의 분화와 다양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과학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도 농학(agricultural science)의 학문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농학에 관한 기초연구가 아주 초보단계에 있고 개발연구 역시 몇개 영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아주 낮은 단계에 있다. 농학의 학문적 발전이 이렇게 뒤떨어져 있어 어려운 처지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학의 학문연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일부 정부의 기관이나 담당자들이 농학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연구비의 투자에 대해 상당히 인식하고 미온적이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대학에서 농학 연구는 연구비와 시설부족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88년 전국 농과대학을 평가한 결과 농과대학의 실험, 실습, 기기 보유율은 문교부 시설기준령에 비교해 볼 때 평균 30%내외에 불과하였다. 또 농과대학은 우선 농업, 농촌, 농민을 떠나서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농과대학들은 사회봉사적인 면에서 무엇을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농촌 발전을 위한 교육의 개선방향

농촌 발전을 위한 교육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농촌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특히 읍·면 단위에 위치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교과목이 상치교사가 없는 전문교과 담당 교사에 의해 가르쳐져야 하고 실험, 실습 시설(특히

특별교실, 도서실, 시청각실, 어학교실, 컴퓨터실)과 각종 실험실습 기기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보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농촌의 우수한 학생들이 자기 고장을 지키고 자기 고장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어 계속 농촌에서 학교를 다니도록 유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촌의 지역주민들은 자기 고장 학교육성을 위해 같이 노력하고 협조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농촌 주민들의 이촌의 주된 이유가 교육환경, 교통, 의료, 문화시설 불비에 있기 때문에 이의 보충, 확충 없이는 농촌 교육의 개선이 어렵다.

셋째, 정부는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청년이면 합리적인 경영진단 설계를 통하여 수지 맞는 상업농을 경영할 수 있는 작목이나 작부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여 과학 영농을 하고 생산량을 높여도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수입을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쉽게 영농에 종사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 농산물 수입으로 얻어지는 이익은 농업, 농민, 농촌 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는 도 단위로 농업의 특성에 따라 3~5개 정도를 자립농업고등학교로 집중 육성하게 한다. 그리고 나머지 농업계 고등학교중 인근에 농공단지 조성되어 있으면서 공업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농업고등학교에 공업과를 설치하여 농공고등학교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농학의 분류체계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농업계고등학교의 소위 말하는 농업, 임업, 축산, 원예과 등의 생산학과는 자영농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2~3학년부턴 농업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유형에 여러가지 전공과정을 모듈화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일곱째, 농업고등학교의 교육에서 농업관계직(Agindustry and agribusiness or off-farm oc-

cupation) 프로그램을 현재보다 더 강화시키고 이에 대한 행정지원체제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업도 아무나 종사하면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을 불식하고 농업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특히 농업 관계직에는 다양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 확대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각 농과대학은 학과 편제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필요한 농학분야를 신설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고등농업인력을 양성하도록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학과에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농과대학의 학과들은 대학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부의 교육과정은 교과목을 과감하게 통폐합 운영하여야 한다.

아홉째, 농과대학의 교육이나 연구는 농업, 농민, 농촌발전에 좀 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즉 농과대학은 농민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좀 더 현실과 미래의 문제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열번째, 농과대학의 학문은 기초 및 개발연구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미흡하므로 특히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학 연구에 과감한 투자를 시도하여야 한다. 연구비 확보는 농산물 수입개방에서 온 이익금의 일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을 위한 실험, 실습 기기 확보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열한번째, 농업, 농민, 농촌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농민, 농업관계 전문가, 행정가, 교육자, 학자는 농업의 문제를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주적 능력도 함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 농업교육, 담당기관, 농업행정기관, 농업관련 산업체간에 유기적인 산학협동체제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농과대학과 농업진흥청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농업 산학협동은 그 조직과 운영이 개편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